

“황제의 처형은 레닌이 지시”

에드바르 라드진스키의 「마지막 짜르, 니콜라이 2세의 삶과 죽음」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와 그의 가족들. 이들은 1918년 우랄지방의 한 벽촌에서 지방볼셰비키들에 의해 일가족이 몰살당한다.

구소련에서 역사란 우리 몸속에 번지는 암과 같은 것이었다. 겉으로 보이지 않기에 끊임없이 부정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이 질병의 진행과정을 테마로 삼은 것이 에드바르 라드진스키(Edvard Radzinsky)의 「마지막 짜르, 니콜라이 2세의 삶과 죽음」(『THE LAST TSAR: THE Life and Death of Nicholas II.』 tr. by Marian Schwartz. 462 pp. New York: Doubleday)이다.

오늘날 체홉 이래 가장 탁월한 극작가로 명망을 얻고 있는 에드바르 라드진스키이지만 20여년전만 해도 모스크바의 ‘역사·문헌연구소’의 학생으로서 막 극작가로서의 명함을 내밀 때였다. 당시 그는 노파가 된 퇴역 여배우 집에서 허름한 방을 세내어 살고 있었다. 저자는 여기서 러시아 제국의 멸망과 기울어가는 로마노프왕가의 모습을 생생하게 언어 들을 수 있었다. 과거를 생생

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녀와의 대화에 한껏 흥미를 느낀 젊은 극작가는 이 ‘사라진 아틀란티스’에 관한 자료와 사진을 찾아 정부기록보존소를 샅샅이 헤매었다. 이 과정에서 마지막 황제 니콜라스 2세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된다.

라드진스키에게 그 일기장 한 페이지, 한 페이지는 모두 황제의 가족이 1918년 우랄지방의 벽촌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일단의 지방 볼셰비키들에게 죽음을 당하고 말 운명의 전조들로 여겨졌다. 반 볼셰비키, 즉 白軍이 황제를 구하기 위해 힘을 다해 그 도시에 닿기 몇시간 전 부랴부랴 황제와 황후, 황태자와 네 공주, 그리고 세명의 시종과 주치의는 감금되어 있던 한 지하실에서 모조리 총살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몇 시간만 먼저 그 도시가 백군의 수중에 떨어졌던들 황제의 가족은 살아 남았을 것이다.

스탈린 치하 35~45년, 고작 10

년간에 근 700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던 것에 견주면 이들의 죽음이란 사소한 것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황제의 죽음은 소련역사의 치부(암)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에 소련당국은 끊임없이 이를 부정하고 은폐하려고 안간힘을 써왔다. 최근의 예로는 5년전, 스페트로프스키(옛이름은 예카테린부르크)의 서기장이던 엘친에게 모스크바의 중앙위원회에서 황제를 총살했던 집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도 있다.

저자 라드진스키는 이러한 소련의 터부를 주제로 삼아, 파문히고 얽혀 있는 황제의 죽음을 둘러싼 이야기를 정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로마노프왕가의 마지막날까지 이르는 자료들을 정리하여 피로 얼룩진 소련의 과거사에 대한 병리적 고발을 성공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 이 책의 값진 소득이다. 짐작컨대 저자가 역사 자료들을 추적하는 방

법에 능숙한 서지학자라는 사실이 이러한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낸 중요한 바탕이었다고 여겨진다.

황제가족의 총살장면에 대한 묘사에는 섬뜩할 정도로 사실성이 넘치는데 그것이 라드진스키의 극작가로서 자질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황제가족은 격리수용된 집의 지하실로 끌려와서는 문 뒤에 매복해 있던 집행자들의 총탄에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을 당하는 것이다. 집행자들 역시 전문꾼은 아닌 이상 황제를 살해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제대로 사격을 해낼 수가 없었던 것 같다. 빛나간 총탄이 무수했을 뿐만 아니라 황제의 딸들은 거의 맞히지도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사격이 시작되었음에도 딸들은 살아 있었다. 이상하게 여긴 살해자들은 목표물을 재점검하면서 그 이유를 알았다. 딸들은 모두 18파운드에 달하는 다이아몬드를 콜셋 속에 감추어놓고 있었던 것이다. 그 다이아몬드들이 총탄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었던 셈.

한편, 이 책에는 황제의 죽음을 둘러싸고 그들이 억류되어 있던 예카테린부르크와 모스크바의 레닌 사이에 오고간 전보들도 제시되고 있다. 이 전보들의 발골은 라드진스키의 중요한 발견 가운데 하나이다. 그동안 황제의 처형이 백군의 진격에 따라 두려움에 휩싸인 예카테린부르크의 지방 볼셰비키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집행되었다는 설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만큼 이 전보의 발골로 인해 황제의 사형집행은 최고 실력자 레닌의 재가를 받은 것임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도 황제의 시체를 알라파에브스크 지역의 폐쇄된 광산에 내다버렸다는 트러운전사의 회고는 미스터리적 흥미를 더한다.

사실, 그동안 이 자료를 여기저기서 모았던 저자는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자료, 즉 크레믈린과 황제의 사형집행자들 사이의 전보를 개혁과 잡지인 오고노크紙에 게재하려고 했었다. 당시 고르바초프는 이 자료의 게재를 한동안 막았지만 1989년 황제의忌日을 틈타 공개되지 않을 수 없었다. 라드진스키의 이 공개는 그동안 묻혀 있던 황제의 죽음에 대한 정보를 붓물터지듯 드러내는 데 기폭제 역할을 했다. 소련의 전지역에서 황제의 죽음에 직

접·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들이 줄을 이었다. 그 가운데는 황제가 격리되어 있던 동네 주민들의 자식, 황궁에서 시종들던 이의 조카, 1920년대에 살해자의 정신질환을 치료했던 의사의 동생들이 있었다. 이러한 증언들은 결국 역사의 기록이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근 70년에 걸친 은닉의 역사가 종내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기는 것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은폐와 밝힘의 과정 가운데 얽혀 있는 또다른 역사의 페이지를 잊어서는 안되리라. 황제가족의 살해에 참가했던 볼셰비키들도 스탈린 치하에서 모두 살해당했다는 사실 말이다. 소련역사의 치부를 은폐하기 위해 그들 역시 역사의 희생물이 되고 난 것이라 고나 할까.

오랜만에 보는 영국소설의 걸작 「태양 되돌리기」

인종차별, 유배, 기억, 그리고 잃어버린 자아. 이러한 것들이 얽혀 영국작가 콜린 더브론(Colin Thubron)의 길지 않은 소설, 「태양 되돌리기」(『TURNING BACK THE SUN』 210pp. New York: Edward Burlingame Books/HarperCollins Publishers)의 주제가 되고 있다. 저자 더브론은 인종간 적대감이 우리 모두를 파멸시키는 질병임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데 그는 소설속에서 그 상징으로서 피부병이라는 장치를 사용한다. 인종차별과 피부병을 관련시키다 보니 “골치아픈 의학관계 소설인가”하고 고개부터 절레거릴 독자를 위해서 토를 달자면 “결코 그렇지 않다.” 차라리 ‘머리가 개운해질’ 소설이며, 파삭파삭거릴 만큼 맛난 소설이다.

이 책에서 가장 탁월한 점은 기막히게 설정된 소설의 무대이다. 저자는 인종차별의 무대를 위해 가공의 장소를 만드는데, 짐작컨대 영국의 과거식민지였던 오스트레일리아의 변방지방이라고 할까, 또는 남아프리카나 혹은 아르헨티나의 어디쯤

라고나 할까, 아니 이들을 뭉뚱거리는데라고 할 그런 곳이다. 여하튼 무대는 주변에 광산과 경작지가 존재하는 내륙의 도심인데 여기에는 유럽인과 극동지방의 이민들이 넘치고 있다. 이 도시의 남쪽에는 사막으로 가로막혀 있고 거기에는 갈색 피부의 원주민들이(이 도시 거주자들은 이들을 “야만인”이라고 부른다) 살고 있다. 시대배경은 1930년대 중반이다.

이 도시의 심리구조는 저자가 명료하게 표현해주듯, “황량함이 온 도시를 마치 코르셋처럼 억누르고 있어, 거주자들이 분출하는 에너지가 외부로 펼쳐나가지 못하고 안으로만 옥죄될 수밖에 없었다... 특트인 지리적 위치와는 달리 외톨이 섬같이 격리된 주민들은 오직 벌고 쓰는 일밖에 할일이 없었고 그들의 열정은 도심의 광장과 거리에 퍼부어졌다. 물론 그렇다고 황량함을 몰아낼 수는 없었다.”

도시의 북쪽은 첩첩한 산들로 가로막혀 있었다. 이 산맥을 넘어 저 멀리 “아름답게 해변의 위치한 도시”가 이 나라의 서울이다. 지금 34살 먹은 백인 의사 레이너(Rzyner)가 19살 먹던 해 이 변방도시로 오기 전까지, 행복한 소년기를 보냈던 곳도 바로 그 곳이었다. 소설속의 주인공인 레이너가 자동차 사고로 홀어머니를 잃고 자신도 평생 다리를 절게 되는 것도 서울에서였다. 끝내는 이 사고로 그는 안락한 가정, 어머니 그리고 젊음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된다. 다니던 의과대학을 낙제로 탈락하게 된 것도 그 사고 때문이라고 레이너는 믿고 있다. 이제 “울분으로 가득찬” 그는 오로지 서울로 돌아가 피부병 전문 의로서 병원을 차리지만을 꿈꾸지만 권위주의 정부에 의해 거주이전조차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꿈의 실현이 불가능할 것임은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는 터이다. 대부분의 이 변경도시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레이너 역시 평생을 이 도시에서 살아야 할지 몰랐다. 이 책의 첫머리를 “너는 결코 돌아갈 수 없어!”라는 말로 열듯 우리는 시계를 돌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레이너는 사막에 사는 원주민들에게 동류의식을 느낀다. 말하자면 신화적인 파라다이스로부터 유배된 원주민들과 서울로부터 유

배된 자신의 처지가 동일한 심적구조로 와닿았던 까닭이다. 주인공 레이너가 사막의 한 오아시스에서 원주민들이 기묘하고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것을 지켜보는 장면은 그러한 동류의식의 상징이다. 해를 하늘로 되돌려 보내는 의식인데 원주민들은 그 ‘되돌림’을 통해 시간을 부활시키고 이로써 그들이 잃어버렸던 에덴을 다시 창조하려는 것이었다. 이 장면 앞에 레이너는 “원주민들을 위해 슬픔의 눈물을 짓는다.” 원주민들의 상실감은 바로 자신의 거울이었던 까닭으로...

한편, 의사로서 레이너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의 관찰자이다. 먼저 농촌지역에 일련의 살해사건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원주민 전투집단의 소행임이 분명했다. 원주민들은 백인들을 겁먹게 하여 농장지대를 떠나게 하고자 했던 것이다. 또다른 사건으로는 기묘한 질병이 창궐하는 것이었다. 목숨과는 관계가 없었으나 흰색피부가 짙은 갈색으로 변하는 피부병이었다. 살해행위와 피부병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이 둘은 모두 최근의 극심한 가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가뭄으로 인해 사막에 방목한 들소들이 죽게 되자 원주민들은 경작지의 백인들을 죽이게 된 것이고, 가뭄으로 인해 도시에 공급되는 수원의 물이 오염되었던 것이다.

히스테리가 온 도시를 휩쓸었다. 살인자를 체포하기 위해 군대가 출동하여 교외의 농가를 뒤져 죄없는 원주민들까지 잡아와 죽였다. 한편 그 질병은 “야만병”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고 야만인들과 성관계를 통해 감염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진단이 온 도시를 횡행했다.

가공의 도시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작가 더브론은 우리에게 어떤 강력한 은유를 던진다. 근래의 AIDS를 둘러싼 ‘희생양 찾기’식의 진단과 30년대 창궐했던(?) 나찌 독일의 인종차별과 정밀한 결합.

「태양 되돌리기」를 구성하는 두 구조물, 즉 주인공의 “고향 되돌아가기”와 주인공이 몸담고 있는 “변경도시의 분란”은 쉽게 융해하지 못할 성격의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구조 사이에서 나타나는 주인공의 「통과의례」는 고향 되돌아가기의 세속적(?) 끈을 끊고 그를 둘러싸

고 있는 삶과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전개된다. 레이너가 인척 아주머니의 상속재산을 받으려 잠시 서울에 들렀을 때 그토록 원해왔던 서울거주 허가를 거부하고 변경도시로 되돌아오는 결단에서 그것은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다양한 장치를 통해 작가는 주인공으로 하여금 도시의 히스테리에 직면하도록 몰고 간다. 레이너가 쫓기는 원주민 노인과 그의 딸을 집에 숨겨주었을 때, 그리고 그의 집이 감시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때 소설은 비극적 클라이막스로 달린다. 그리고 레이너가 자신의 길에서 벗어난 자아를 되찾는 순간 오랫동안 기다리던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소설은 끝난다.

「태양 되돌리기」는 몇가지 지적해줄 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기드물게 문학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작품이며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실제로 믿고 서있는 삶을 되씹어보게 하는 교훈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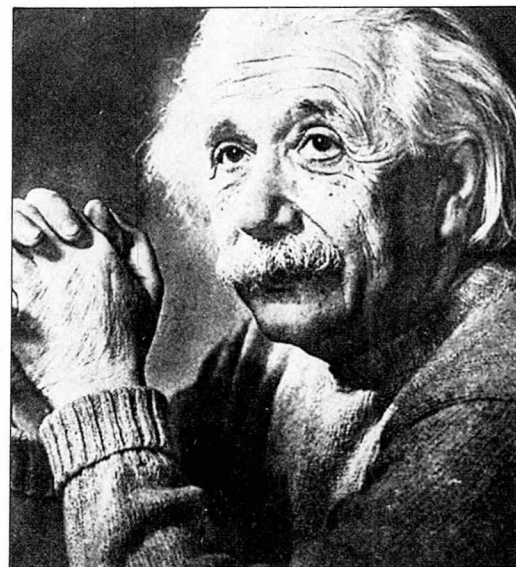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연애편지’

“힘내요! 내사랑.” 21살 먹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연인에게 부치는 편지의 끝을 이렇게 맺고 있다. “난 당신의 허리를 으스스지도록 껴안고 싶어 미칠 지경이야. 우리가 지금 당장 함께 살더라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돈이야 지천으로 많이 벌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내년 봄쯤 결혼하는 게 어때? —당신의 알버트로부터.”

아직도 머리좋은 과학자의 지성 뒤에 열정과 매력이 가득차 있을 것으로 여기는 고풍스런 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아인슈타인의 편지투는 그 자체 하나의 뉴스거리가 될 터이다. 아인슈타인과 그의 연인(그후 그의 아내가 된다) 밀레바 마릭(Mileva Maric) 사이에 오고간 戀書들이 「아인슈타인의 사랑의 편지」(ALBERT EINSTEIN / MILEVA MARIC, *The Love Letters*)

eb. by Jurgen Renn & Robert Schulmann, 108pp. Princeton University Press)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어 화제다. 마릭은 세르비아 출신이다. 물리학과 학생이던 1896년에 아인슈타인을 만나 당시의 젊은 사람들처럼 평범한 사랑을 하다 결혼에 이른 사람이다.

아인슈타인은 마릭을 “스위스 연방 과학대학” 물리학과 동급생으로 만났다. 마릭은 이 학급에 유일한 여학생이었는데 편지들을 통해 보건대 이 둘은 물리학이라는 학문적 측면에서나 감성적 측면에서나 서로 교감하는 바가 있었던 것 같다.



아인슈타인은 쓰기를 “나는 당신을 만난 것을 참으로 행운으로 생각해. 나와 동등한 사람, 나와 똑같이 강한 사람, 나와 똑같이 독립적인 사람을 만나다니! 너가 없는 우리 교실은 고독하게 짝이 없어.”

이 책 속에 수록된 그들의 편지는 그들이 만났던 때부터 시작하여 1년이 지난 1903년 가을까지 걸쳐 있다. 그들의 편지가 무리익을 즈음 아인슈타인은 자신을 “조니”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마릭을 “돌리”라는 애칭으로 쓰고 있다. 이즈음 그들은 결혼에 골인하여 베른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게 된다. 당시 아인슈타인은 스위스에서 특허업무를 취급하는 변리사 사무실에 근무했었다. 그리고 마릭은 이미 둘째 아들 한스 알버트를 임신하고 있었다. 첫째 딸 리즐은 두해 전에 이미 낳았는데 결혼하기 전의 일이었다.

이 편지들은 아인슈타인 그리고 마릭이 젊은 시절 골똘하게 연구했던 물리학의 문제들에 대한 증거들도 제공하고 있다. 이 점은 역시 과

학사를 전공하는 학자들에게 아인슈타인의 사상발전에 관한 많은 실마리를 제시할 거리들이지만 우리 같은 문외한들로서는 뭐가 뭔지 모를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들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편지들을 읽다 보면 꼭꼭 소상한 내용은 알지 못해도 그들의 지적 작업이 얼마나 진지하고 깊이있는 것이었든가는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한편, 아인슈타인은 그의 부모들이 “여자인 남자의 장식품에 불과하다. 그렇게 때문에 남자는 여자에게 여유로운 삶을 제공할 때만이 남자 대접을 받는다”라는 명제를 교

육했던 데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기도 하다.

“나는 이런 식으로 조건지어진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수긍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런 식이라면 아내와 매춘부 사이의 차이점이란 매춘부가 일시적인 계약이라면 아내란 남자와 평생동안의 계약을 맺은 것에 불과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많은 일반 독자들, 그리고 물리학 전문가들조차도 사랑의 편지 속에 아우러진 학문적 노트를 통해, 뛰어난 과학자의 학문적 열정의 진지함에 혀를 내두를 것이다. 연애조차 학문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었다니... 사족을 달자면 알버트와 밀레바의 戀書속에 담겨진 젊은 시절의 학문적 노트들은 그 자체 하나의 책으로 묶어도 좋았을 것이다.